



B O A R D O F S T U D I E S
NEW SOUTH WALES

2012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Continu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민호: 오늘 미술반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9학년 모두는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종이접기를 배웠는데, 오늘 우리반은 토끼접기를 했어요.

영희: 재미있었겠어요. 우리 10학년 반은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춥고 비가 와서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면서 검은 뱀을 봤어요. 나는 뱀을 처음으로 봤어요. 우리는 뱀이 길에서 없어질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옷이 비에 젖어서 아주 추웠어요.

민호: 정말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교실은 따뜻하고 좋았어요. 종이접기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Question 1

여행사 여직원: 안녕하세요? 한국여행사입니다.

준식: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에 가려고 하는데요. 비행기 표 있어요?

여행사 여직원: 잠깐만요. (잠시 후) 죄송합니다, 손님. 수요일은 자리가 없습니다.

준식: 그럼 언제 자리가 있어요?

여행사 여직원: 잠깐만요. (잠시 후)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모두 자리가 있어요.

준식: 수요일에 가야하는데.....음.....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Question 2

눈이 너무 많이 오기때문에, 오늘 밤 뉴욕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출발을 못합니다. 뉴욕행 Flight 601 손님들은 지금 체크인 카운터에서 새 비행시간표를 받아 가십시오.

Question 3

수미: 어, 준호, 여기서 뭐 해?

준호: 시험 공부 하러 왔어. 수미, 너는 왜 일이야?

수미: 책 돌려 주려고 왔어. 여기 자주 오니.

준호: 응. 자주 와. 조용하고 깨끗해서 좋아.

수미: 그런데, 너 지금 어디 가?

준호: 저기 앞에 커피 마시러 가. 같이 갈래?

수미: 아니야. 지금 좀 바빠. 나중에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준호: 그래 좋아. 아, 벌써 배 고프다. 그럼, 한 시에 여기에서 만나자.

수미: 그래, 안녕.

Question 4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직접 느끼고 싶으세요?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2주 동안 한국사람들의 집에서 같이 생활할 것입니다.

낮에는 한국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관광도 하고 한국식당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집의 초등학생에게 하루에 2시간씩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복 비행기표를 사야합니다.

Question 5

[Sound effect: start with an answering machine tone]

엄마 아빠, 저 사라예요. 여기 제주도예요.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제 뮤직콘서트에 갔을 때 3AM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잖아요. 정말 꿈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반 친구 제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시드니 친구를 여기서 만나요? 우리는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내일부터 같이 여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면 너무 재미 있을 거예요. 제니도 같이 갈 거예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Question 6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인기 프로그램, 'You can do it'. 오늘은 가수 이지민씨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민 씨.

이지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이번에 어디 어디 가셨어요?

이지민: 네, 도쿄, 뉴욕, 시드니 그리고 베이징에서 콘서트를 하고 왔습니다.

MC: 아직 피곤하시겠어요.

이지민: 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MC: 지민씨 어린이 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지민: 세 살때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와 두 눈을 잃었어요. 그 후로 아무것도 보지 못 해요.

MC: 많이 어렸을것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지민: 저는 언제나 노래를 아주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여섯살 생일날에 기타를 사 주셨어요. 그 후로 기타가 저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그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MC: 너무 힘들었겠어요.

이지민: 네,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때마다 제 옆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와 기타가 있었어요.

MC: 그랬군요. 이지민 씨, 노래 하나 해 주시겠어요?

Question 7

수미: 안녕, 준식. 나 수미야. 감기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준식: 응. 많이 좋아. 그런데 웬 일이야?

수미: 너 테니스 잘 하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하잖아?

준식: 너 갑자기 왜 테니스 애길 해? 무슨 얘기 하려고 해?

수미: 응, 사실은 오늘 우리 반 친구들과하고 테니스 클럽 만들기로 했어.

준식: 그게 뭘데?

수미: 2주마다 토요일 아침에 같이 테니스 치러 가는 거야.

준식: 그런데, 나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토요일 아침에 일 하러 가.

수미: 그래? 그럼 오후에 가면 돼. 친구들도 괜찮을 거야.

준식: 음.....

수미: 그리고 올림픽 파크에서 할 거야. 너의 집에서 아주 가까워. 너 꼭 와야 해. 네가 없으면 재미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해나가 와.

준식: 진짜?

Question 8

매니저: 수진 씨, 어서 오세요.

수진: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매니저: 아,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수진: (어리둥절하여) 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매니저: 일요일에도 일 할 수 있습니까?

수진: (어리둥절+따지는 목소리로) 일요일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일 아니었어요? 광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매니저: 네, 맞아요. 그런데,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요. 일요일에도 일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어요. 그러면 돈을 더 드리겠어요.

수진: (실망+간절한 목소리로) 오, 어떡해요. 저는 일요일은 안 돼요. 교회에 가야 돼요.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예요. 일요일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저는 주중에 일하면 안 될까요? 네?

매니저: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번 일요일부터 일할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수진: (화난 목소리로) 뭐라고요? 안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요.

매니저: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화해 주세요.

수진: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알았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